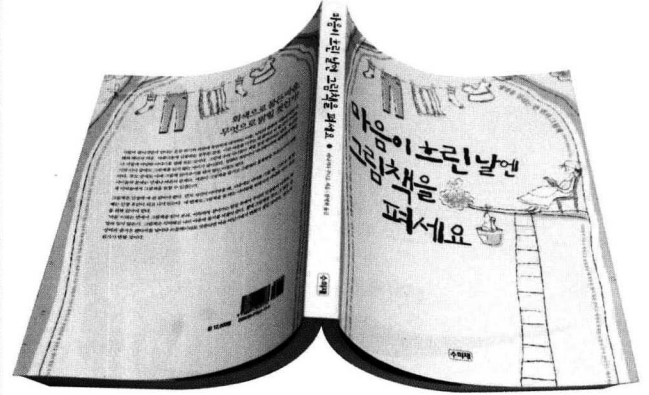


《마음이 흐린 날엔 그림책을 펴세요》 그림책, 희망을 배달합니다

글_송보경 기자



《마음이 흐린 날엔 그림책을 펴세요》
야나기다 구니오 지음 | 한명희 옮김 | 수희재 | 253쪽 | 값 12,000원

마음이 고단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불 꺼진 방에 누워 음악을 듣기도 하고,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를 만나 대화하며 한바탕 마음의 웅어리를 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소설에 빠져 있을 때 자잘한 시름을 잊는다고 한다.

개인적인 습관이지만 종종 동화책을 쌓아놓고 읽곤 한다. 요즘 동화책은 대상 독자의 연령 구분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나눈다. 세대(?)간 격차가 나기 때문이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신체 성장 만큼이나 사고 능력도 빠른 속도로 자라는가 보다. 그래서인지 요즘 동화책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와는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아이들이 영악해진건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해보지만 반면 어린이 책이라고 감히 무시하면 안되겠다는 마음에 자꾸 신간 동화를 살펴 보게 되고, 여전히 순수하고 밝은 동심이 깃들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읽는 재미를 더 느끼기도 한다.

《마음이 흐린 날엔 그림책을 펴세요》는 동화책과 그림책의 효용을 쓴 책이다. 제목만 봐선 대상 연령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림책 읽기를 권장하는 또 다른 그림책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내용을 보면 '책 속의 그림책'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여러 종류의 그림책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그림책'이라 불려도 썩 다른 말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로 일흔이 넘은 할아버지다. 일본 NHK 사회부 기자로 오랫동안 재직했고 퇴직 후에는 논픽션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딱딱하고 건조한 글을 주로 써왔던 저자가 어떻게 '그림책' 에찬론을 펼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마음이 조금 힘들어진다. 저자 야나기다 구니오는 60살이 되던 해 우연히 들른 서점 코너에서 《플란다스의 개》를 발견한다. 거의 50여년 전 읽었던 책이지만 반세기가 흘러 책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일게 된다. 이유는 25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요지로의 삶과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15살 네로의 짧은 생을 겹쳐 보며 죽은 아들의 인생에도 삶의 '춘추동'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부모로서 아들의 짧은 생을 안타까워만 했었지만 알고 보면 아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안도감과 위로를 그림동화 속에서 발견했다. 이후 그는 매마른 마음으로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이 그림책을 통해 회복되어 감을 느낀다. 그리고 뛰어난 그림책과 동화가 인간의 따스함, 훌륭함, 잔혹함,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강연을 통해 그는 '그림책은 인생에 세 번' 읽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다. 자신이 아이였을 때, 아이를 기를 때, 인생의 후반이 되고 나서, 이렇게 세 번 그림책을 읽는 것이다. 마지막 인생 후반이 되고 나서 읽는 세 번째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읽는다는 점이 제언의 포인트다.

“그림책은 어른이 되어(특히 인생 후반이 되어) 읽으면 삶과 생명과 사랑에 대해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일견 흘러버릴 수 있는 그의 이같은 주장은 일본 각지에서 날라온 독자 엽서를 통해 설득력을 얻는다. 60대 주부는 그림책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방법, 감성을 기르는 방법을 얻었다 말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니는 31세 여성은 완전히 망가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그림책을 읽는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생각해보면 그림책과 동화책이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단순하다. 꿈과 희망, 상상력과 즐거움, 위로와 기쁨. 책을 통해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모든 요소들이 그림책에 담겨 있다. 아직 이 모든 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한 아이들이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어른에게나 책이 보유한 양분의 질량은 동일하다. 섭취는 독자의 몫이다. 누구라도 그 책을 읽으면 독자다. **송보경**